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4조9214억 편성

학생 건강·안전·미래교육 환경 위한 필수사업 '주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8,496억원(20.9%) 늘린 4조 9,214억 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이에 따른 주요 재원으로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지자체 수입 8,21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전수입 265억원, 자체 수입 및 기타 20억원 등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실시 환경, 학교 급식 기구 및 시설 개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 시설 인프라 구축 등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 억제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했다.

이날 밝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생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35억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58억원 △학교 스포츠클럽 여건 조성 등 안전한 학교체육시설 설치 24억원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 운영비 지원 42억원 등 160억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책임 교육 및 학생 복지를 위해 △교육회복 기초학력 향상 지원 19억원 △직업계고 학생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 등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31억원 △물가인상 급증에 따른 급식비 추가 지원 29억원 △교육복지 환경개선에 5억원 등 148억원을 반영했다.

세번째로, △미래교육환경 조성과 학

교 현장 지원을 위해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105억원 △식생활관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 기구 교체 50억원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체험교육지원 등 AI교육 기반 조성 63억원 △학교자치 복합 공간 프로젝트 운영 30억원 △유치원 놀이시설 환경개선 5억원 등 763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교육재정 안정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5,3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원 등 7,300억원을 적립했다.

/정은성 기자



동료교수 폭행 의혹 '진실 공방'으로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이귀재 교수서 교육감, 진실 은폐하지 마라" 반박 나서

교육감 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기된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점점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7일 도교육청에서 '이귀재 교수와 서거석 교육감은 진실을 은폐하지 말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서거석 현 교육감의 동료교수 폭행의혹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전북대 이귀재 교수가 지난 5일 입장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폭행 시비는 당시 전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사실 논쟁이 부각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 이제라도 도민에게 명명백백 그 진실을 밝혀야 하는 공적인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을 규명하고 전북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사건의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태들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교육네트워크는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이귀재 교수가 과거 폭행에 관해 밝혔던 내용과 폭행 현장에 있던 사람의 증언"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통화 내용, 현장 증인의 확인 내용 등 일부를 공개한다"라고 했다.

/정은성 기자

교실혁명·수업혁신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성 '공감대'

서거석 교육감, 유·초·중등 수석교사와 간담회 열고 방안 논의

서거석 교육감이 수석교사와 수업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유·초·중등 수석교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들로부터 교실혁명·수업혁신 방안 등에 대한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12년 법제화 된 수석교사제의 운영 취지와 수업전문가 활용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수석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서 교육감의 의지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수석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의 수업전문성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성(student agency) 함양을 위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교실혁명, 수업혁신'으로 역량중심 기초학력 구현 및 맞춤형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수석교사들이 제안한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교실혁명, 수업혁신'을 위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및 수업 중심 학교문화 분위기 조성에 공감하고 격려했다.

서 교육감은 "너 많은 선생님들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유·초·중등 수석교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실현장에서 수업전문가로서 역할을 발휘해 교실혁명 수업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기계·자동차부품 설계 인력 양성 '박차'

우석대, 산학관 커핑링 12년 연속 선정... 전문인력 220여명 배출

우석대학교 i-CAD교육사업단이 기계·자동차부품 설계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산·학·관 커핑링사업 중 기계·자동차부품 설계 분야에 선정된 우석대학교 i-CAD교육사업단은 연간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화 전략 취업캠프와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CAD·CAE 교육, CAD·3D 프린팅 경진대회, 자격경쟁 운영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참여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공학부

재학생에 대해 실습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의사를 밝혀왔다.

12년 연속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i-CAD교육사업단은 현재까지 22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 일자리 mismatch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i-CAD교육사업단은 참여기업에 '대형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스카프결합 탐상시뮬레이션' 등 다수의 기술이전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광희 i-CAD교육사업단장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및 협력 활동에 대한 접



우석대학교 i-CAD교육사업단이 기계·자동차부품 설계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검과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체의 기술 상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CAD교육사업단은 오는 11월 11일 산·학·관 공동현장 세미나를 개최,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교육성과 및 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한전 전북, JSV 부합 현장실습 '맞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성모)는 7일 AI뉴테크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재배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조장준 기술진단부장, 김문필 고객지원부장, 최영락 기술진단과장 등과,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보좌관, 김미선 교목실

장, 이주연 전기공학과 학과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형사회가치(JSV)에 부합한 지역대학생 현장중심 실습, 전기기술 관련 전문 인력양성체제의 연계성 강화, 상호 교류 활성화 및 업무 협약 등 취업과 연계된 제반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시상식

로고·슬로건·마스코트 등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병춘은 7일 총장실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개교 100주년을 기념사업 공모전은 로고, 슬로건, 마스코트 부문으로 나눠 접수했으며, 내부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최종 심사를 거쳐 부문별 당선작 1점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은 로고와 슬로건 부문에서 박재서(영어, 3년) 학생의 로고, 전주교대 100주년 기념 브랜드, 슬로건 '교육을 밝힌 100년, 미래를 이룰 100년'이, 마스코트 부문에서 이주연(영어, 2년) 학생의 '포퓰어'가 선정됐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상장과 함께 부문별 상금도 시상했다.

한편, 이번엔 선정된 슬로건은 전주교대 100주년 기념 홍보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며, 마스코트와 로고는 추후 추가 선정·보완 후 최종 선보일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13일부터 2023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13~17일 5일 간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4,181명) 중 69.6%인 2,908명을 선발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860명,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905명, 예체능 실기 143명 등이다.

전형방법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일반학생,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

학생부종합전형 860명·교과전형 1905명 등 총 2908명 선발

100%를 적용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70%), 면접 점수(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이전보다 완화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선 간호, 수의, 약학, 외의, 치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농어촌학생선발 전형은 신설해 60명을 선발하고, 지역인재전형으로 524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은 '전북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모 또는 모와 학생 모두 전북지역에 거주

주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서류평가를 통한 면접대상 인원을 지난해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였으며,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학교를 추가했다.

이 밖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모집단위별로 단순화하고 수능최저등급도 전반적으로 완화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익산 더조은 요양원서 미용봉사활동

'미용천사들' 동아리 유학생 회원들 참가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유학생들과 교수 14명이 지난 6일 익산시 소재 더조은 요양원을 찾아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건강과 미용천사들' 동아리 회원 유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미인파 유

학생 투부(4년)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던 미용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 드린 헤어컷과 화장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며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 동안 이렇게 경험한 미용봉사활동을 졸업 후 미인파에 들어가 우리 모국에서도 어려운 사

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효숙 교수는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업기간 동안 전공과 연계한 직무능력을 연마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보람을 함께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직업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석 전에 어르신들을 찾아 미용서비스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에이파워, 전북신산업융합대전 '대상'

전주대학교 BI(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에이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효열)은 최근 열린 2022년 전북신산업융합대전 2022 아이디어 메이커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메이커 경진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익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창업공유지원단 주최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김효열 대표는 "전력 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로 갑작 사고 예방이라는 전제를 갖고 기자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등



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갑작 사망 예방에 중점을 두는 기자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